GLOBAL
EQUITY

2026. 1. 20

글로벌주식

김재우 팀장
jaewoo79.kim@samsung.com

윤희재 Research AssociateAssociate
heejae23.yoon@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은행

미국 은행 4Q 실적: 26년 개선세 지속에 대한 가시성 제고

- 4Q 실적은 전년동기대비 견조한 개선세를 시현. NII (순이자이익) 성장과 Credit cost 안정화가 실적 개선의 핵심.
- 양호한 실적 불구, 카드 이자율 10% 상한 규제와 관련된 우려가 은행주 조정 야기. 다만, 은행 CEO들은 해당 규제의 현실화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생각.
- 은행들은 26년 가이던스를 제시. 핵심은 이자이익 증가 및 영업 레버리지 효과 지속에 따른 수익성 (ROTCE: 보통주자본대비 수익률로 ROE와 유사 개념) 개선.

WHAT'S THE STORY?

미국 주요 은행 4Q 실적 – 견조한 개선세 지속: 미국 주요 은행들은 견조한 실적 개선세를 지속. 실적을 발표한 5개 주요 은행의 합산 기준 4Q 매출액은 5.8% y-y 증가, 이익은 6.0 % y-y, 그리고 EPS는 13.9% y-y 증가 (JP Morgan의 애플카드 인수 관련 추가충당금 제외 기준)

실적 내용도 긍정적: 은행들의 4Q 실적은 내용도 긍정적. 1) 이자이익은 8.5% y-y 증가하였고, 2) 충당금은 소폭 감소세를 시현 (애플카드 관련 부담 제외). 3) 한편, 은행들의 자본비율 하락세는 이어졌는데, 이는 자산성장세 개선과 높은 주주환원율 지속에 기인.

실적 시즌 중 주가 하락 야기한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 – CEO들은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으로 생각: 미국 은행들의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을 10%로 제한하는 규제 우려가 은행주 주가 하락을 야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는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다수 있었으나, 이에 대한 CEO들의 답변은 1) 오히려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신용 위축은 물론 2) 경제 전방위적으로 부작용이 클 수 있으며, 3) 과거 Carter 행정부 하에서도 금융 규제는 부작용으로 인해 2개월밖에 유지되지 못한 경험이 있는 만큼, 현명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6년 가이던스 제시 – 이자이익 증가세 지속: 은행들은 26년 가이던스를 제시. 핵심은 1) 이자이익의 mid-single digit 성장과 2) 이보다 낮은 비이자비용 증가로 인한 영업 레버리지 개선 효과 기대, 그리고 3) 이에 따른 ROTCE 목표의 상향으로 요약 가능. 이는 은행들의 업황 사이클 개선에 따른 실적 및 수익성 개선이 26년에도 지속될 것임을 시사. 일각에서는 은행주 PBR의 추가 개선 여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수익성 개선과 더불어 은행들의 적극적인 주주환원 강화 기조 지속은 오히려 Valuation 매력도를 추가적으로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다음 페이지에 계속)

I. 미국 주요 은행 4Q25 실적 Review – 이자이익 성장 및 건전성 개선 확인

미국 주요 은행 4Q 실적 컨센서스 상회

미국 주요 은행들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4Q 실적을 발표. 실적을 발표한 5개 주요 은행(JP Morgan, Bank of America, Citi Group, Wells Fargo, PNC Financial)의 합산 기준 4Q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0.4% 소폭 하회한 바면, 이익 및 EPS는 각각 2.0% 및 5.1% 상회.

하지만, 매출과 당기순이익의 전년동기대비 큰 폭 개선에 보다 초점 필요. 실제로 이들 은행의 합산 기준 매출액은 5.8% y-y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당기순이익은 0.6% y-y 증가에 그쳤지만, 이는 JP모건이 애플카드 인수로 인해 22억 달러의 선제적 충당금을 적립한 것에 기인. 즉, JP모건이 인식한 추가충당금을 제외한 이익 증가는 6.0% y-y 로 추산 가능.

은행들의 4Q 실적은 내용적인 측면도 양호한 것으로 평가. 1) 대출 및 수신 성장률이 견조한 가운데, 2) NIM 방어가 이자이익 성장을 견인하였고, 3) 비이자이익 증가로 이어졌으며, 4) 총 충당금 적립액은 전분기는 물론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며 Credit cost 사이클의 Peak out에 대한 기대를 높인 것으로 생각.

은행별 매출액 vs 컨센서스

(백만 달러)	매출액	컨센서스	차이 (%)
JP Morgan	45,798	46,044	(0.5)
Bank of America	28,367	27,779	2.1
Citigroup	19,871	20,416	(2.7)
Wells Fargo	21,292	21,636	(1.6)
PNC Financial	6,071	5,968	1.7
합계	121,399	121,844	(0.4)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순이익 vs 컨센서스

(백만 달러)	순이익	컨센서스	차이 (%)
JP Morgan	13,025	12,808	1.7
Bank of America	7,647	7,111	7.5
Citigroup	2,471	2,581	(4.3)
Wells Fargo	5,361	5,692	(5.8)
PNC Financial	2,020	1,738	16.3
합계	30,524	29,930	2.0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EPS vs 컨센서스

(달러)	EPS	컨센서스	차이 (%)
JP Morgan	4.63	4.39	5.4
Bank of America	0.98	0.95	2.9
Citigroup	1.19	1.43	(16.8)
Wells Fargo	1.62	1.67	(2.7)
PNC Financial	4.88	4.22	15.6
합계	13.30	12.66	5.1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매출액

(백만 달러)	4Q23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QoQ (%)	YoY (%)
JP Morgan	38,574	41,934	50,200	42,654	42,768	45,310	44,912	46,427	45,798	(1.4)	7.1
Bank of America	21,959	26,863	26,305	26,213	26,475	28,247	27,443	29,040	28,367	(2.3)	7.1
Citigroup	17,440	21,016	20,139	20,209	19,581	21,596	21,668	22,090	19,871	(10.0)	1.5
Wells Fargo	20,478	20,863	20,689	20,366	20,378	20,149	20,822	21,436	21,292	(0.7)	4.5
PNC Financial	5,361	5,145	5,411	5,432	5,567	5,452	5,661	5,915	6,071	2.6	9.1
합계	103,812	115,821	122,744	114,874	114,769	120,754	120,506	124,908	121,399	(2.8)	5.8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당기순이익

(백만 달러)	4Q23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QoQ (%)	YoY (%)
JP Morgan	9,307	13,419	18,149	12,898	14,005	14,643	14,987	14,393	13,025	(9.5)	(7.0)
Bank of America	3,144	6,653	6,803	6,711	6,806	7,360	7,170	8,332	7,647	(8.2)	12.4
Citigroup	(1,839)	3,371	3,217	3,238	2,856	4,064	4,019	3,752	2,471	(34.1)	(13.5)
Wells Fargo	3,446	4,619	4,910	5,114	5,079	4,894	5,494	5,589	5,361	(4.1)	5.6
PNC Financial	883	1,344	1,477	1,490	1,610	1,481	1,627	1,808	2,020	11.7	25.5
합계	14,941	29,406	34,556	29,451	30,356	32,442	33,297	33,874	30,524	(9.9)	0.6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시사점 1. NII (순이자이익) 증가 폭 확대 – 연말로 갈수록 확대는 26년에 대한 기대로

은행들의 순이자이익은 4Q에도 8.5% y-y의 견조한 증가세를 지속. 특히,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은행들의 이자이익 증가세는 보다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이자이익 사이클의 회복세로도 일부 해석 가능. 즉, 은행들의 이자이익 증가세는 25년에 한시적 현상이 아닌, 26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 실제로 은행들의 연간 이자이익은 5.0% 증가한 가운데, 은행들은 26년 이자이익 증가율 가이던스로 5.3~14.0%를 제시.

이자이익을 견인한 NIM 및 대출성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 장에서부터 후술.

은행별 순이자이익

(백만 달러)	4Q23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QoQ (%)	YoY (%)
JP Morgan	24,051	23,082	22,746	23,405	23,350	23,273	23,209	23,966	24,995	4.3	7.0
Bank of America	13,946	14,032	13,702	13,967	14,359	14,443	14,670	15,233	15,750	3.4	9.7
Citigroup	13,824	13,507	13,493	13,362	13,733	14,012	15,175	14,940	15,665	4.9	14.1
Wells Fargo	12,771	12,227	11,923	11,690	11,836	11,495	11,708	11,950	12,331	3.2	4.2
PNC Financial	3,403	3,264	3,302	3,410	3,523	3,476	3,555	3,648	3,731	2.3	5.9
합계	67,995	66,112	65,166	65,834	66,801	66,699	68,317	69,737	72,472	3.9	8.5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25년 NII 및 26년 가이던스

(십억 달러)	25년 이자이익	24년 이자이익	YoY (%)	26년 가이던스	YoY (%)
JP Morgan	95.4	92.6	3.1	103.0	7.9
Bank of America	60.1	56.1	7.2	64.3	7.0
Citigroup	59.8	54.1	10.5	63.4	6.0
Wells Fargo	47.5	47.7	(0.4)	50.0	5.3
PNC Fiancial	14.4	13.5	6.7	16.4	14.0
합계	277.2	263.9	5.0	295.1	6.5

참고:26년 가이던스는 최대값 기준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시사점 2. NIM은 q-q 상승 – 조달금리 하락 효과 및 자산 리프라이싱 영향

4Q 중 은행들의 NIM은 대체적으로 전분기대비 견조한 상승세 시현. Wells Fargo만 NIM이 전분기대비 1bp 하락하였을 뿐, JP Morgan, BofA, Citi 등은 모두 높은 한 자릿수의 NIM개선세를 보였음. 1) 4Q 중 운용금리와 조달금리 모두 하락하였지만, 조달금리 하락 폭이 보다 크게 나타나며 NIM 개선을 견인. 2) 한편, 은행들의 운용금리 하락 폭이 다소 더디게 나타난 원인으로는 만기가 도래하는 저금리 자산이 현재의 높은 금리로 차환되는 과정에서 Re-pricing 효과가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큰 것으로 생각. 실제로 이들 은행의 만기보유 증권(HTM Securities)은 4Q에도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들 은행이 만기 도래하는 저수익 만기보유증권을 보다 수익성이 높은 운용 자산으로 차환하고 있음을 시사.

한편, 은행들의 예금 잔액은 견조한 증가세를 시현. 5대 은행 기준 예금 잔액은 6.3% y-y, 2.2% q-q 증가하였음. 은행으로의 수신 유입은 여전히 양호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산 성장 한도 규제가 해제된 Wells Fargo의 수신은 3.7% q-q, 3.7% y-y 성장하며 자산 성장 속도 제고에 나서고 있음을 확인.

은행별 NIM, 운용 금리, 조달 금리 추이

(%)	4Q23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QoQ (bps)	YoY (bps)
JP Morgan											
NIM	2.81	2.71	2.62	2.58	2.61	2.58	2.43	2.45	2.54	9	(7)
운용 금리	5.53	5.55	5.57	5.55	5.31	5.19	5.04	5.05	4.95	(10)	(36)
조달 금리	3.50	3.59	3.67	3.68	3.36	3.17	3.15	3.13	2.94	(19)	(42)
Bank of America											
NIM	1.97	1.99	1.93	1.92	1.97	1.99	1.94	2.01	2.08	7	11
운용 금리	5.02	5.12	5.15	5.14	4.91	4.67	4.60	4.64	4.50	(14)	(41)
조달 금리	4.01	4.10	4.20	4.17	3.82	3.47	3.43	3.40	3.17	(23)	(65)
Citigroup											
NIM	2.46	2.42	2.41	2.33	2.42	2.47	2.51	2.40	2.49	9	7
운용 금리	6.48	6.48	6.42	6.36	6.22	5.92	5.93	5.89	5.81	(8)	(41)
조달 금리	4.97	5.01	4.96	4.99	4.64	4.26	4.17	4.26	4.06	(20)	(58)
Wells Fargo											
NIM	2.92	2.81	2.75	2.67	2.70	2.67	2.68	2.61	2.60	(1)	(10)
운용 금리	5.20	5.24	5.25	5.24	5.02	4.85	4.87	4.88	4.75	(13)	(27)
조달 금리	3.09	3.22	3.31	3.43	3.12	2.92	2.89	2.94	2.76	(18)	(36)
PNC Financial											
NIM	2.66	2.57	2.60	2.64	2.75	2.78	2.80	2.79	2.84	5	9
운용 금리	5.03	5.08	5.13	5.25	5.04	4.90	4.93	4.99	4.86	(13)	(18)
조달 금리	3.10	3.24	3.26	3.34	2.95	2.72	2.74	2.81	2.59	(22)	(36)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은행별 조달 금리

(%)	4Q23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QoQ (bps)	YoY (bps)
JP Morgan	3.5	3.59	3.67	3.68	3.36	3.17	3.15	3.13	2.94	(19)	(42)
Bank of America	4.01	4.10	4.20	4.17	3.82	3.47	3.43	3.40	3.17	(23)	(65)
Citigroup	4.97	5.01	4.96	4.99	4.64	4.26	4.17	4.26	4.06	(20)	(58)
Wells Fargo	3.09	3.22	3.31	3.43	3.12	2.92	2.89	2.94	2.76	(18)	(36)
PNC Financial	3.1	3.24	3.26	3.34	2.95	2.72	2.74	2.81	2.59	(22)	(36)
평균	3.73	3.83	3.88	3.92	3.58	3.31	3.28	3.31	3.10	(20)	(47)
%p q-q	0.25	0.10	0.05	0.04	(0.34)	(0.27)	(0.03)	0.03	(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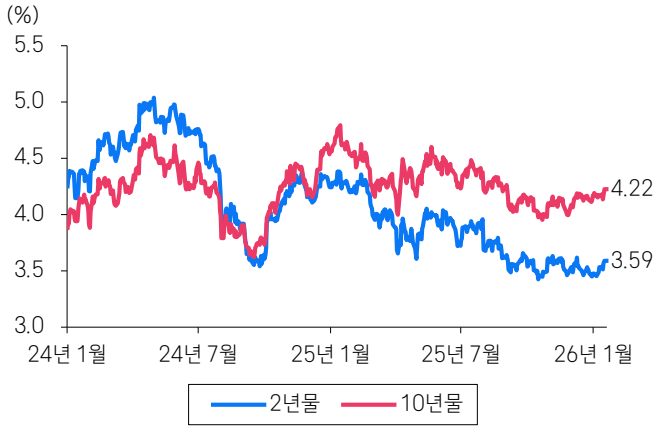
참고: 단순평균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이자부예금 잔액 추이

(십억 달러)	4Q23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QoQ (%)	YoY (%)
JP Morgan	1,713.2	1,726.1	1,722.9	1,749.4	1,793.3	1,842.9	1,902.3	1,914.0	1,949.0	1.8	8.7
Bank of America	1,362.3	1,386.9	1,396.3	1,413.7	1,445.7	1,448.0	1,460.0	1,478.7	1,491.6	0.9	3.2
Citigroup	1,124.8	1,132.2	1,108.7	1,109.1	1,116.5	1,103.8	1,139.0	1,180.4	1,218.3	3.2	9.1
Wells Fargo	946.5	996.9	1,006.8	986.2	984.4	972.9	970.7	984.2	1,020.5	3.7	3.7
PNC Financial	319.4	321.3	320.9	326.3	329.1	328.3	329.8	339.1	344.7	1.7	4.7
합계	5,466.2	5,563.3	5,555.6	5,584.6	5,669.1	5,695.8	5,801.8	5,896.3	6,024.1	2.2	6.3
JP Morgan 제외	3,753.0	3,837.2	3,832.8	3,835.3	3,875.8	3,852.9	3,899.5	3,982.4	4,075.1	2.3	5.1

참고: 분기 평균 잔액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2년 vs 10년 만기 미국채 수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HTM 잔액 추이

(십억 달러)	4Q24	1Q25	2Q25	3Q25	4Q25	QoQ (%)	YoY (%)
JP Morgan	274.5	265.1	260.6	293.4	270.1	(7.9)	(1.6)
Bank of America	558.7	550.7	541.3	531.4	522.7	(1.6)	(6.4)
Citigroup	242.4	220.4	206.1	197.1	189.8	(3.7)	(21.7)
Wells Fargo	234.9	227.2	221.5	214.2	208.0	(2.9)	(11.5)
PNC Financial	77.7	74.5	75.2	73.2	70.1	(4.3)	(9.8)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시사점 3. 대출 성장률 – 성장 지속 긍정적. 다만, 완연한 경기 회복 기반 성장은 아직

4Q 중 은행들의 대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추가적으로 상승. 5개 은행 합산 기준 4Q 대출성장률은 7.4% y-y, 2.3% q-q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분기 성장률 5.8% y-y, 2.0% q-q보다도 높아진 수치. 즉, 하반기로 갈수록 은행들의 대출 성장률이 회복되며 26년 성장률 회복세 지속에 대한 가시성을 제고하였다는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다만, 3Q에 이어 4Q에도 대출 성장은 여전히 소매금융보다는 CIB 및 WM 부문이 견인. 일례로, BofA는 1) 가계보다는 기업 부문이, 2) C&I보다는 자본시장 관련 Global Market 부문에서, 그리고 3) WM 부문에서 고객들의 투자 등의 수요에 따른 대출 성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이와 같은 모습은 JP Morgan도 동일. 동사의 4Q 대출 성장 중 소매금융 대출은 116억 달러 증가하며 성장세가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CIB가 380억 달러, WM이 101억 달러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

이는 현재 은행을 둘러싼 신용 환경이 여전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시사. 즉, 1) 여전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및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해 가계 혹은 중소기업 부문의 대출 성장보다는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연이어 경신하며 투자 부문에서의 대출 수요가 은행의 대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2) 은행 또한 하반기까지는 건전성 및 수익성 관리를 감안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을 시사.

다만, 이는 향후 매크로 환경 개선에 따라 은행들의 추가 대출 성장 여력이 여전히 충분히 있음을 의미. 즉, 올해도 FED의 추가적인 기준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가계 및 중소기업의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대출 수요 회복 가능성이 높고, 미국 경기 회복이 뒷받침될 경우 은행들의 대출 태도 또한 보다 우호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한편, 4Q 중 Wells Fargo는 Asset cap, 즉 자산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 완화에 대응하여 대출 성장률 2.9% q-q를 기록, 빠르게 다른 은행들의 성장률을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음.

은행별 대출 잔액 추이

(십억 달러)	4Q23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QoQ (%)	YoY (%)
JP Morgan	1,315.4	1,311.6	1,313.1	1,325.4	1,339.4	1,339.4	1,380.7	1,417.5	1,461.1	3.1	9.1
Bank of America	1,050.7	1,047.9	1,051.5	1,059.7	1,081.0	1,093.7	1,128.5	1,153.0	1,170.9	1.5	8.3
Citigroup	674.7	678.8	679.6	686.5	688.0	690.7	712.2	725.0	737.0	1.7	7.1
Wells Fargo	938.0	928.1	917.0	910.3	906.4	908.2	916.7	928.7	955.8	2.9	5.5
PNC Financial	324.6	320.6	319.9	319.6	319.1	316.6	322.8	325.9	327.9	0.6	2.8
합계	4,303.4	4,286.9	4,281.1	4,301.5	4,333.8	4,348.7	4,460.8	4,550.1	4,652.8	2.3	7.4
JP Morgan 제외	2,988.0	2,975.3	2,968.0	2,976.1	2,994.4	3,009.3	3,080.1	3,132.7	3,191.7	1.9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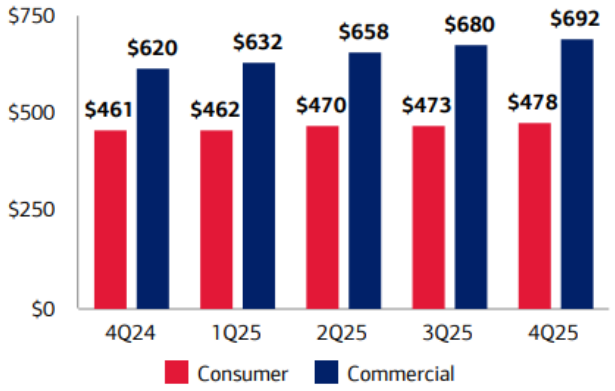
참고: 분기 평균 잔액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미국 주요 은행 부문별 대출 분기 순증액

(십억 달러)	JP Morgan	Bank of America	Wells Fargo	PNC Financial
Retail Banking	11.6	5.5	4.0	0.1
CIB	38.0	41.8	17.0	2.1
WM	10.1	19.2	2.5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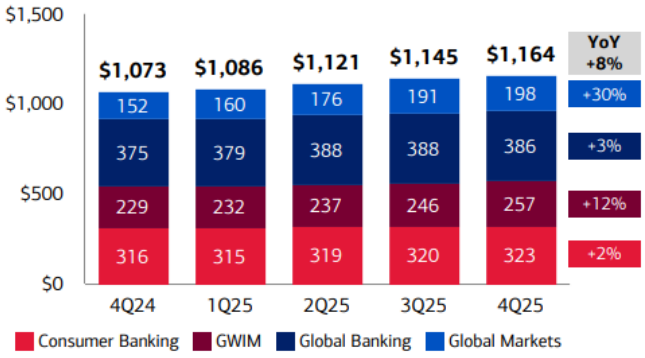
참고: BofA CIB는 Global Banking과 Global Markets 부문 합산

BofA – 부문별 대출 추이 (USDb)



자료: BofA

BofA – 업종별 대출 추이



자료: BofA

시사점 4. 대손 충당금 비용 부담 전분기대비 감소 – JP모건은 Tricolor 손실 반영

JP Morgan의 애플카드 인수 관련 추가충당금 22억 달러를 제외한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비용은 10.4% q-q, 9.7% y-y 감소. 특히, 4Q 중 본격적으로 대출을 늘린 Wells Fargo까지 제외할 경우, 해당 비용의 감소 폭은16.3% q-q 및 10.4% y-y로 확대. 즉,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비용은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 가능.

특히, 선제적 충당금 적립 성격의 Net reserve build의 감소세는 지속. JP Morgan의 애플카드 인수 영향 22억 달러를 제외할 경우, Net reserve build는 29.0% q-q 감소. 즉, 당초 은행들이 언급하였던 25년 하반기 중 대손 사이클의 Peak out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

CRE 시장 개선 기대 – 충당금 감소세 지속

한편, CRE (Commercial Real Estate: 상업용 부동산)와 관련하여 Wells Fargo는 긍정적인 view를 언급. 동사의 CFO는 CRE 시장 회복세와 관련한 애널리스트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음과 같이 언급.

- 오피스를 제외한 상업용 부동산은 multifamily, industrial, 데이터센터 등 전방위적으로 수요가 회복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지고 있음.
- 한편, 오피스의 경우 valuation의 안정화는 보이지만, 좋은 사무공간과 그렇지 않은 공간 사이에는 분명 차별화가 존재. 활기 넘치는 도시에 비교적 신축의 A급 이상 오피스 공간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CMBS 시장 거래 내역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 반면, 오래된 재고는 안정화되었고, 은행은 이를 지속해서 관리하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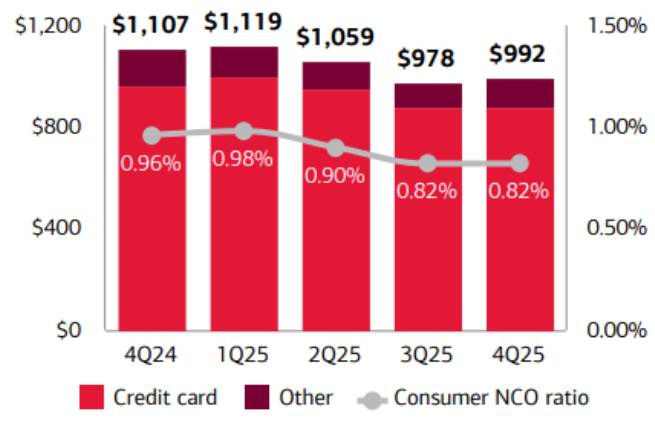
실제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충당금 부담은 전분기 대비 감소하며 하향 안정화 추세를 지속. 관련 자료를 공개한 BofA는 CRE 관련 충당금이 전분기대비 감소세를 시현.

은행별 대손 충당금 추이

(백만 달러)	4Q23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	QoQ (%)	YoY (%)
JP Morgan											
Net charge offs	2,164	1,956	2,231	2,087	2,364	2,332	2,410	2,593	2,514	(3.0)	6.3
Net reserve build	598	(72)	821	1,024	267	973	439	810	2,141	164.3	701.9
Total provisions	2,762	1,884	3,052	3,111	2,631	3,305	2,849	3,403	4,655	36.8	76.9
Bank of America											
Net charge offs	1,192	1,498	1,533	1,534	1,466	1,452	1,525	1,367	1,287	(5.9)	(12.2)
Net reserve build	(88)	(179)	(25)	8	(14)	28	67	(72)	21	n/a	n/a
Total provisions	1,104	1,319	1,508	1,542	1,452	1,480	1,592	1,295	1,308	1.0	(9.9)
Citigroup											
Net charge offs	1,994	2,303	2,283	2,172	2,242	2,459	2,234	2,214	2,190	(1.1)	(2.3)
Net reserve build	1,553	62	193	503	351	264	638	236	30	(87.3)	(91.5)
Total provisions	3,547	2,365	2,476	2,675	2,593	2,723	2,872	2,450	2,220	(9.4)	(14.4)
Wells Fargo											
Net charge offs	1,252	1,149	1,301	1,111	1,211	1,009	997	942	1,046	11.0	(13.6)
Net reserve build	30	(211)	(65)	(46)	(116)	(77)	8	(261)	(6)	n/a	n/a
Total provisions	1,282	938	1,236	1,065	1,095	932	1,005	681	1,040	52.7	(5.0)
PNC Financial											
Net charge offs	200	243	262	286	250	205	198	179	162	(9.5)	(35.2)
Net reserve build	32	(88)	(27)	(43)	(94)	14	56	(12)	(23)	n/a	n/a
Total provisions	232	155	235	243	156	219	254	167	139	(16.8)	(10.9)
합계											
Net charge offs	6,802	7,149	7,610	7,190	7,533	7,457	7,364	7,295	7,199	(1.3)	(4.4)
Net reserve build	2,125	(488)	897	1,446	394	1,202	1,208	701	2,163	208.6	449.0
Total provisions	8,927	6,661	8,507	8,636	7,927	8,659	8,572	7,996	9,362	17.1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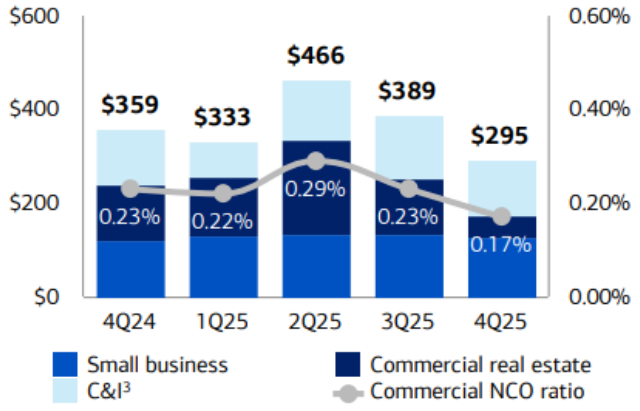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BofA 소매금융 NCO (백만 달러)



자료: Bank of America

BofA Commercial NCO (백만 달러)



자료: Bank of America

시사점 5. 리테일뱅킹 및 CIB 전분기대비 감소, 그러나 전년동기대비 개선

4Q 리테일뱅킹과 CIB부문 모두 전년동기대비 견조한 매출 및 이익 성장을 시현. 1) 리테일뱅킹과 CIB 부문 모두 매출액은 각각 5.8%, 7.5% y-y 증가하였고, 2) 순이익 또한 각각 19.6%, 6.6% y-y (JP Morgan의 애플카드 충당금 제외)의 견조한 개선세를 시현.

은행별 리테일뱅킹 매출 추이

(백만 달러)	4Q24	1Q25	2Q25	3Q25	4Q25	QoQ (%)	YoY (%)
JP Morgan	18,362	18,313	18,847	19,473	19,396	(0.4)	5.6
Bank of America	10,646	10,493	10,813	11,166	11,201	0.3	5.2
Wells Fargo	8,980	8,913	9,228	9,650	9,571	(0.8)	6.6
PNC Financial	3,532	3,532	3,756	3,806	3,759	(1.2)	6.4
합계	41,520	41,251	42,644	44,095	43,927	(0.4)	5.8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리테일뱅킹 순이익 추이

(백만 달러)	4Q24	1Q25	2Q25	3Q25	4Q25	QoQ (%)	YoY (%)
JP Morgan	4,516	4,425	5,169	5,009	3,642	(27.3)	(19.4)
Bank of America	2,821	2,531	2,973	3,437	3,304	(3.9)	17.1
Wells Fargo	1,602	1,689	1,863	2,185	2,128	(2.6)	32.8
PNC Financial	1,074	1,121	1,359	1,324	1,241	(6.3)	15.5
합계	10,013	9,766	11,364	11,955	10,315	(13.7)	3.0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CIB 매출 추이

(백만 달러)	4Q24	1Q25	2Q25	3Q25	4Q25	QoQ (%)	YoY (%)
JP Morgan *	17,598	19,666	19,535	19,878	19,375	(2.5)	10.1
Bank of America**	10,931	11,361	11,670	12,469	11,542	(7.4)	5.6
Wells Fargo	4,613	5,064	4,673	4,879	4,616	(5.4)	0.1
PNC Financial	2,755	2,630	2,720	2,909	3,066	5.4	11.3
합계	35,897	38,721	38,598	40,135	38,599	(3.8)	7.5

참고: *JP Morgan은 기존 Commercial Banking 및 CIB 부문 합산 기준
**Bank of America는 Global Banking, Global Markets 부문 합산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은행별 CIB 순이익 추이

(백만 달러)	4Q24	1Q25	2Q25	3Q25	4Q25	QoQ (%)	YoY (%)
JP Morgan*	6,636	6,942	6,650	6,901	7,268	5.3	9.5
Bank of America**	3,080	3,862	3,227	3,773	3,070	(18.6)	(0.3)
Wells Fargo	1,580	1,941	1,737	1,966	1,639	(16.6)	3.7
PNC Financial	1,365	1,248	1,229	1,459	1,514	3.8	10.9
합계	12,661	13,993	12,843	14,099	13,491	(4.3)	6.6

참고: *JP Morgan은 기존 Commercial Banking 및 CIB 부문 합산 기준
**Bank of America는 Global Banking, Global Markets 부문 합산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시사점 6. 자본비율 하락세 지속 – 주주 환원 강화와 여신 성장, 두 가지 가치의 추구

5개 은행들의 CET-1 비율은 전분기 대비 평균 0.3%p 하락. 은행들의 실적이 견조한 가운데, 높은 주주 환원율이 4Q에도 지속되었고, RWA 증가율이 8.4% y-y를 기록하며 높은 성장이 지속되었기 때문.

4Q 중 주주 환원 규모를 발표한 은행들의 주주 환원율은 평균적으로 109.8%를 기록. 또한, 25년 연간 기준 주주환원율은 평균 92.0%를 기록. 이는 24년 연간 71.9%, 23년 연간 59.4%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은행들의 주주 환원 강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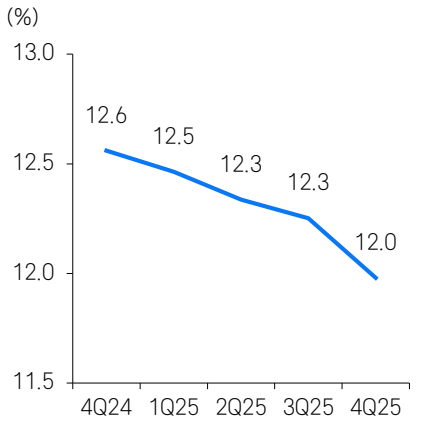
은행들의 주주 환원 강화는 지속될 여지가 큰 것으로 예상. 1) 은행 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 기조가 점차 규제 등을 통해 실현되기 시작하였고, 2) 은행들 또한 현재의 자본비율에서 최소 요구 기준에 소폭의 buffer를 감안한 수준까지 추가적으로 낮출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3) 대출 성장도 지속될 전망이지만, 급격한 증가보다 경제성장률과 보폭을 맞추는 것을 가이던스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주주 환원율이 높은 수준을 이어갈 여지가 크다고 생각.

5개 은행 주주 환원 Breakdown (4Q25)

(백만 달러)	총 주주 환원	배당	자사주 매입	당기순이익	주주 환원율 (%)
JP Morgan	12,000	4,100	7,900	13,025	92.1
Bank of America	8,400	2,100	6,300	7,647	109.8
Citigroup	4,500	4,500	-	2,471	53.6
Wells Fargo	6,400	1,400	5,000	5,361	119.4
합계	31,300	12,100	19,200	28,504	10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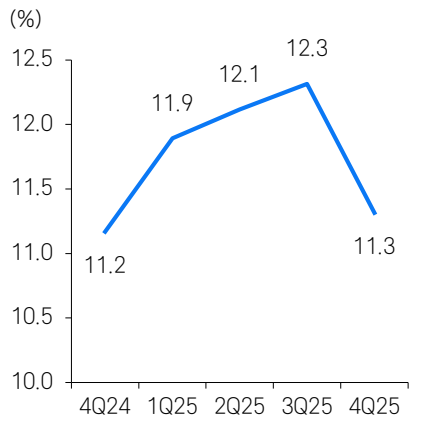
자료: 각 사, Bloomberg, 삼성증권

5개 은행 평균 CET-1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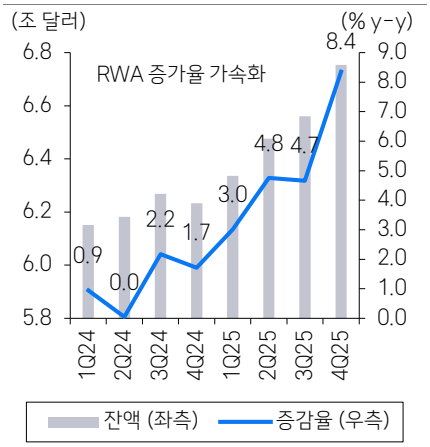
참고: 5개 은행 단순평균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5개 은행 평균 ROE 추이



참고: 5개 은행 단순평균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5개 은행 합산 RWA 추이



참고: 5개 은행 합산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II. 26년 가이던스 긍정적
– 신용카드 규제 우려는 현실적 한계 고려 필요

실적 컨퍼런스에서 언급된 신용카드 규제 – 은행들의 답변은 '현실적이지 않다'

은행들의 양호한 실적 및 긍정적인 26년 실적 가이던스 발표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는 지난 주 1.7%의 조정을 거쳤음. 이는 신용카드 이자율 금리 상한 10% 규제가 언급된 것은 물론, 이후 카드 네트워크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규제 가능성까지 언급되었기 때문. 즉, 금융사들의 가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가능성이 부각됨에 따라 금융사들의 마진 희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

이에 은행들의 4Q25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애널리스트들은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에 대한 은행 CEO들의 견해를 문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이 요약 가능.

1. JP 모건 –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격 기능 훼손은 소비자들의 대출 접근성 저해 야기 가능

미국 신용카드 시장은 경쟁 강도가 높은 만큼, 현재 카드대출 금리는 최적화된 수준. 이러한 시장에 가격 규제가 들어올 경우, 단순한 마진 축소가 아닌 서비스 제공 방식의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소비자들은 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잃을 것이고, 특히 서브프라임 고객들에 대한 영향이 더욱 클 것.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 전반에 대한 부정적 여파를 야기할 것.

JP모건 입장에서 현재의 신용카드 시장은 높은 경쟁 강도에도 불구, 여전히 좋은 시장이기에 참여하고 있지만, 만약 규제로 인해 사업성이 크게 저해될 경우, 해당 시장에 참여할 이유가 없음.

2. BofA – 규제의 의도화는 달리, 민간 신용 축소 불가피

금리 한도를 낮출 경우, 신용을 위축시킬 것. 즉,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소비자 수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 신용카드의 사용 가능 금액 또한 제한될 것.

현재 BofA가 보유한 소비자 중 200~250만명은 500억 달러 이상의 단기 자금 대출을 5달러의 수수료만을 내고 이용 중. 또한, BofA는 부가 기능을 제외한, 즉 기본 기능만 제공하되 금리를 낮춘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25년 중 70만명의 소비자가 해당 카드를 발급받았음.

하지만, 금리 상한 규제가 실행된다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불가피할 것. 즉, 행정부와 국회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주체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한 충분한 토의가 진행될 것.

3. Citi – 이러한 규제는 의도한 바와 같이 작동하지 않음. 과거 카터 행정부의 실패는 이를 방증

미국은 이미 과거 카터 행정부의 신용 규제 시 이에 따른 영향과 결과를 경험한 바 있음 (주석: 당시 카터 행정부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1980년 한시적인 신용 규제를 실시. 이를 통해 정부는 가계신용, 특히 신용카드를 억제하는 정책을 내놓았음. 그러나, 이는 경기를 더욱 악화시켰고, 대중의 반발을 가져왔으며, 이에 실시 2개월만에 철회되었음).

참고로, 미국 소비자는 매년 6조 달러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며, 현재 신용카드 잔액은 1.2조 달러임. 하지만, 만약 신용카드 상품의 수익성이 훼손된다면, 이러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급격히 감소할 것. 이와 같은 금융 규제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다른 국가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 가운데, 미국 내에서도 이러한 규제는 다수의 소비자 및 기업들에 있어 신용카드에 대한 접근성을 훼손할 것. 더 나아가, 이에 따른 도미노 현상은 소매, 여행 등 다른 업종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보다 넓은 관점에서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

26년 가이던스 긍정적 수치 제시

은행들은 '26년 실적 가이던스를 발표. 핵심은 1) 이자이익의 견조한 증가와 2) 비용 관리에 따른 이익 성장, 그리고 3) ROTCE (or ROE)의 개선.

1. 이자이익 (NII) 가이던스 – 전년과 유사 혹은 상회하는 수준의 증가율 제시

은행들은 26년 이자이익 증가율로 전년 (25년)과 유사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가이던스를 제시. 1) 25년의 NII, 이자이익 증가율은 5.0%로 24년의 1.3 % 감소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된 가운데, 2) 26년의 이자이익 증가율이 25년보다 낮을 이유를 찾기는 어렵고, 3) 오히려 금리 인하와 경기 회복 등으로 인해 대출 수요가 개선, 보다 대출 성장률 회복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이의 배경으로 언급.

참고로, 각 은행별 NII 가이던스 및 이러한 전망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이 정리.

은행별 순이자이익 추이 및 가이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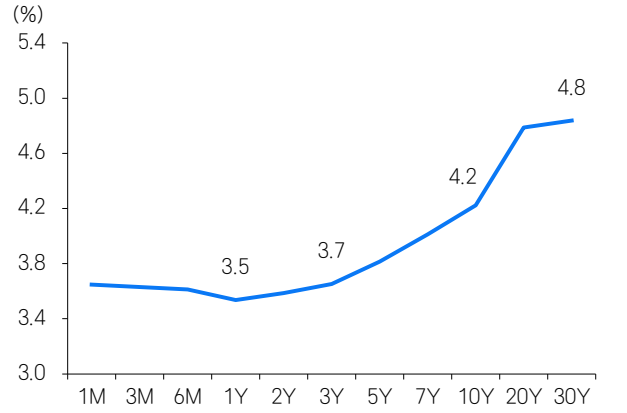
(십억 달러)	1Q25	2Q25	3Q25	4Q25	2025	2026E	YoY (%)
JP Morgan	23.273	23.2	24.0	25.0	95.4	103.0	7.9
Bank of America	14.443	14.7	15.2	15.8	60.1	64.3	7.0
Citigroup	14.012	15.2	14.9	15.7	59.8	63.4	6.0
Wells Fargo	11.495	11.7	12.0	12.3	47.5	50.0	5.3
PNC Financial	3.476	3.6	3.6	3.7	14.4	16.4	14.0
합계	66.699	68.3	69.7	72.5	277.2	295.1	6.5

자료: 각 사, 삼성증권

FED 26년 금리 인하 횟수 컨센서스 변화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미국 Yield curv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1-1. JP모건 – 7.9%의 견조한 NII 성장 가이던스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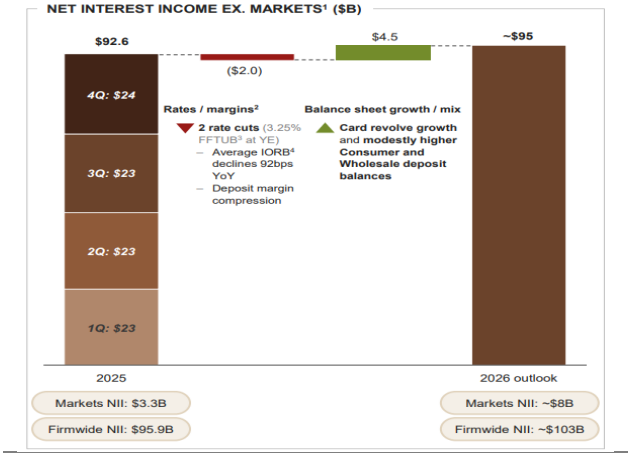
JP모건은 '26년 이자이익을 1,030억 달러로 제시 (vs '25년 954억 달러). 또한, NII ex market은 950억 달러로 25년 926억달러 대비 2.6% 증가를 제시. 이는 1) 현재 FED가 26년 중 두 차례의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NIM에 부담 요인이지만, 2) 카드 부문의 대출 성장률이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3) Market NII 또한 금리 인하에 따른 조달금리 하락으로 인해 80억 달러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 (vs 25년 33억 달러).

1-2. BofA – 5~7% 성장 가이던스, "25년보다 낮아야 할 이유가 없다"

BofA는 26년 이자이익 증가율로 5~7%를 제시. 1) 동사 또한 2회의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가운데, 2) 대출 및 예금의 견조한 성장과 3) 채권 등의 만기 도래에 따른 금리 re-pricing이 이자이익 증가에 기여할 전망인 것으로 언급. 실제로 26년 중 1) 120~150억 달러의 MBS와 모기지 대출이 매 분기마다 차환될 예정인 가운데, 2) 이들 자산은 기존대비 150~200bp 높은 금리에 차환 되거나, 3) 신규 대출로 차환되지 않고 상환이 되더라도 기존의 고금리 단기 조달 재원의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NIM 개선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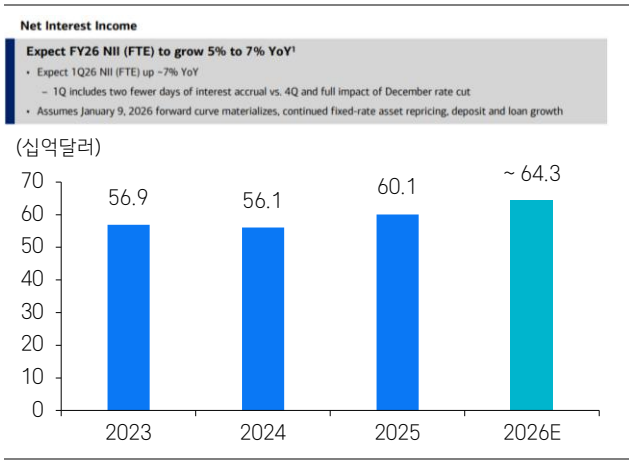
참고로, 동사는 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25년보다 낮게 봐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 고 언급하며 자신감을 피력. 특히, 25년 대출 성장이 상업용 대출에 기인한다면, 26년에는 소비자 대출이 회복세를 보이며 대출 성장률 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언급.

JP Morgan: 2025년 순이자이익 가이던스



자료: JP Morgan

BofA: 2026년 순이자이익 가이던스



자료: Bank of America, 삼성증권

1-3. Citi – 이자이익 5~6% 증가 가이던스 제시

Citi는 26년 이자이익 (ex markets) 가이던스로 5~6% 성장률을 제시. 이자이익 성장의 상당 부부분은 볼륨 성장과 믹스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대출 성장은 카드와 자산관리가 견인할 것으로 예상. 또한, 동사는 고정금리부 유가증권과 파생 등이 보다 높은 금리의 금융상품으로 차환되는 과정에서도 NII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 실제로 26년 중 만기가 도래하는 유가증권 중 30%가 현재보다 낮은 금리인 만큼, 이들 재원을 대출이나 유가증권 등으로 운용하는 과정에서 수익률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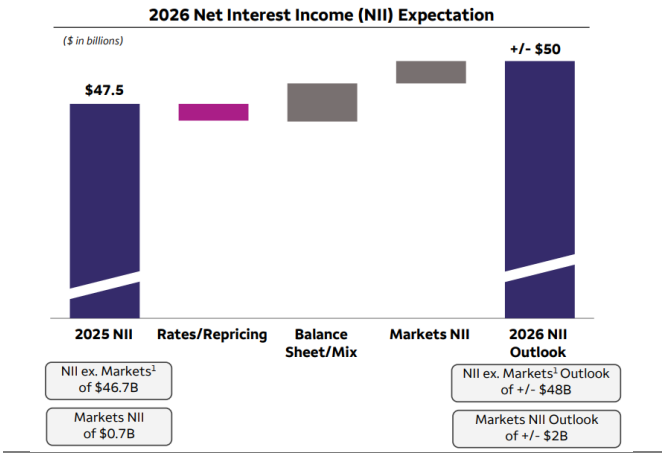
1-4. Wells Fargo – 2.8% 성장 가이던스 제시 (market 포함 5.3% 증가 시사)

웰스파고는 '26년 이자이익 (ex markets) 가이던스로 480억 달러를 제시. 이는 25년 467억 달러대비 2.8% 증가율을 시사. 이는 1) 2~3회의 FED 금리 인하에도 불구,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연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하되, 3) 대출 및 예금 성장과 4) 채권 금리 re-pricing이 NII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인. 참고로, 동사는 4Q26 대출 평잔 잔액이 4Q25대비 한 자릿수 중반의 성장을 전망하는데, 이는 상업용 대출 뿐만 아니라, 자동차 금융과 신용카드 대출 등 전방위적으로 고른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한 것에 기인.

1-5. PNC 파이낸셜 – First Bank 인수로 인해 14% 증가 가이던스 제시 (제외 기준 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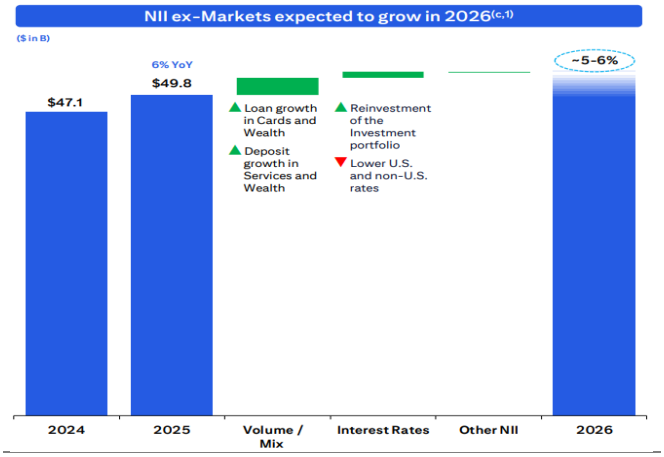
PNC파이낸셜은 연간 이자이익이 14% 증가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제시. 다른 은행들에 비해 이자이익 증가율 가이던스가 높은 이유는 동사가 1월 초 마무리한 First Bank 인수 영향이 반영되었기 때문. 참고로, First Bank의 총 대출 및 예금은 각각 160억 달러 및 230억 달러로 이는 PNC Financial의 각각 4.9% 및 5.2% 수준임. 동사는 First Bank 인수 효과를 제외한 이자이익 증가율은 7.5~8%인 것으로 언급. 참고로, 동사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로 2%를, 금리 인하는 25bp씩 두 차례를 가정하였음.

Wells Fargo: 2026년 순이자이익 가이던스



자료: Wells Fargo

Citi Group: 2026년 순이자이익 가이던스



자료: Citi Group

PNC Financial: 2026년 순이자이익 가이던스

Full Year 2026 Guidance[1,2]	
Average loans: (FY25 baseline: $323.4 billion)	Up ~8%
Net interest income: (FY25 baseline: $14.4 billion)	Up ~14%
Noninterest income: (FY25 baseline: $8.7 billion)	Up ~6%
Total revenue: (FY25 baseline: $23.1 billion)	Up ~11%
Noninterest expense, ex. 1x integration costs (non-GAAP): (FY25 baseline: $13.8 billion)	Up ~7%
Effective tax rate: (FY25: 17.5%)	~19.5%

Expect to generate ~400 bps of positive operating leverage in 2026

자료: PNC Financial

PNC Financial: FirstBank 인수 관련 내용

자료: PNC Financial

2. 비용 관리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 확대

금번 실적 가이던스에서 은행들이 26년 가이던스와 관련하여 강조한 또 다른 요인은 영업 레버리지 확대. 금번에 실적을 발표한 은행들 중 영업 레버리지 효과 가이던스를 언급하는 은행들의 이자이익 증가율은 5~8%로 비이자비용 증가율 2~6%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2~4%p로 언급.

은행들의 ROE에 기초한 PBR 부담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영업 레버리지 확대에 따른 ROE 상향 가능성은 Valuation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높여주는 요인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가능. 이는 수익 증가율이 비용 증가율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영업 레버리지 확대 효과는 이익 규모의 증가는 물론 ROE로 대변되는 수익성의 개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기 때문.

주요 은행 영업 레버리지 효과 가이던스

(%)	BofA	Citi	Wells Fargo	PNC
이자이익 증가율	5~7	5~6	~5	~8
비이자비용 증가율	~4	~3	~2	~6
영업 레버리지 개선 효과	~2	positive	positive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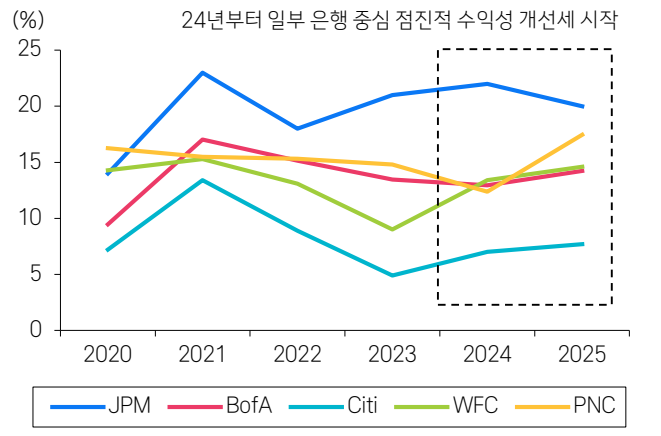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정리

3. ROTCE 가이던스 상향

금번 실적 설명회에서 Citi, Wells Fargo, PNC Financial은 ROTCE 목표를 상향하였음. 1) Citigroup은 26년 ROTCE 목표로 10~11%를 제시. 이는 지난 해 8.8%보다 1.2~2.2%p의 큰 폭의 상승을 시사하였고, 2) Wells Fargo는 25년 중 기존의 ROTCE 목표 15%를 달성함에 따라 중기 ROTCE 목표를 17~18%로 상향조정하였으며, 3) PNC Financial은 공식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는 않지만, 26년을 마칠 때는 17%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내년 이시기에는 예상치가 18%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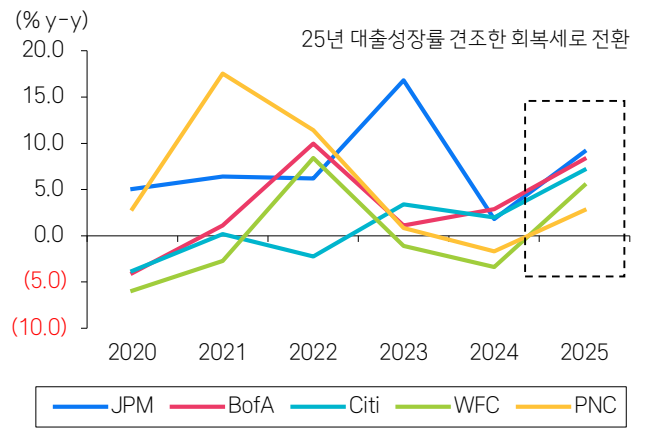
이는 상당기간 정체되어 왔던 은행들의 ROTCE가 개선 사이클에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 1) NIM의 안정화와 대출성장률 회복에 따른 이자이익 증가, 2) 충당금 사이클의 하향 안정화 시작, 3) 은행들에 대한 자본비율 규제 완화로 인한 은행들의 레버리지 비율 확대 등이 추세적으로 이어질 여지가 커졌기 때문. 그리고, 이는 궁극적으로 은행들의 Valuation에 긍정적 요인으로 해석 가능.

은행별 ROTCE 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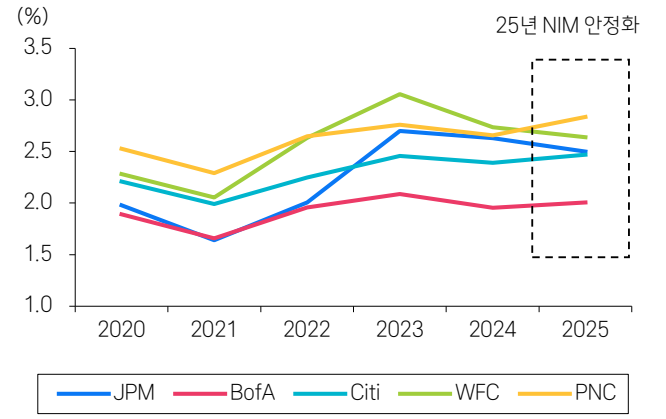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은행별 대출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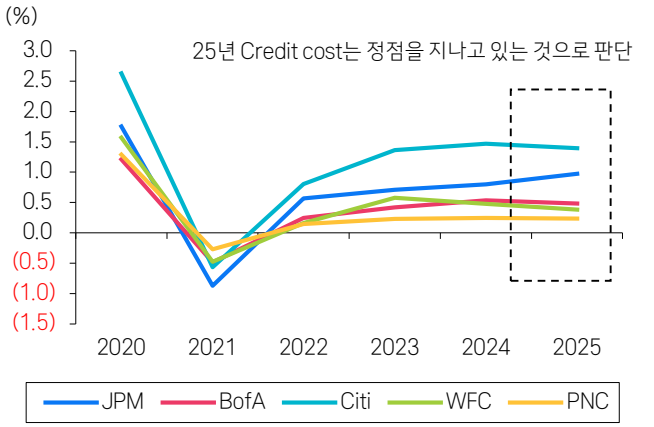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은행별 NIM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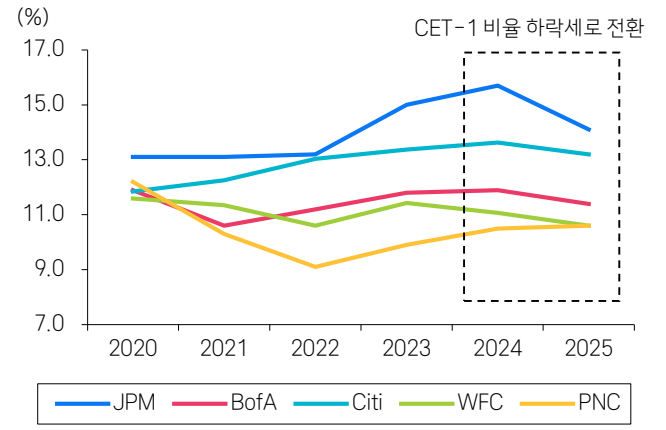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은행별 CC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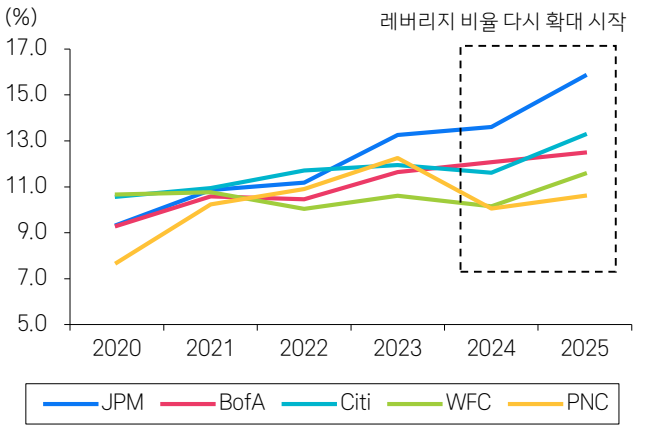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은행별 CET-1 비율 추이



자료: 각 사, 삼성증권

은행별 자산 – 자본 비율 추이



자료: 각 사, 삼성증권

26년 실적 개선 컨센서스 – 7.9% 이익 증가하며 실적 개선 속도 가속화 시사

26년 은행 실적 컨센서스는 전년대비 7.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1) 매출 성장률은 5.6 %로 전년 4.1%대비 1.5%p 상승하고, 2)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7.9%로 전년 5.1%대비 2.8%p 높으며, 3) EPS 증가율 또한 14.0%로 전년 11.7%를 2.3%p 상회.

즉, 컨센서스는 올해 은행들의 매출 및 이익 증가 속도가 보다 가속화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자사주 매입 효과로 인해 EPS 증가율은 이보다도 더 가속화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음.

5대 은행 매출 추이 및 컨센서스

(백만 달러)	2022	2023	2024	2025	YoY (%)	2026E	YoY (%)
JP Morgan	128,695	158,104	177,556	182,447	2.8	192,632	5.6
Bank of America	99,838	98,581	105,856	113,097	6.8	118,676	4.9
Citigroup	78,183	78,462	80,945	85,225	5.3	90,294	5.9
Wells Fargo	73,933	82,597	82,296	83,699	1.7	88,306	5.5
PNC Financial	21,120	21,490	21,555	23,099	7.2	25,160	8.9
합계	401,769	439,234	468,208	487,567	4.1	515,068	5.6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5대 은행 순이익 추이 및 컨센서스

(백만 달러)	2022	2023	2024	2025	YoY (%)	2026E	YoY (%)
JP Morgan	37,676	49,552	58,471	57,048	(2.4)	58,503	2.5
Bank of America	32,416	26,515	26,973	30,509	13.1	33,230	8.9
Citigroup	17,690	9,228	12,682	14,306	12.8	18,954	32.5
Wells Fargo	13,322	19,142	19,722	21,338	8.2	22,460	5.3
PNC Financial	6,113	5,647	5,921	6,936	17.1	7,331	5.7
합계	107,217	110,084	123,769	130,137	5.1	140,478	7.9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5대 은행 EPS 추이 및 컨센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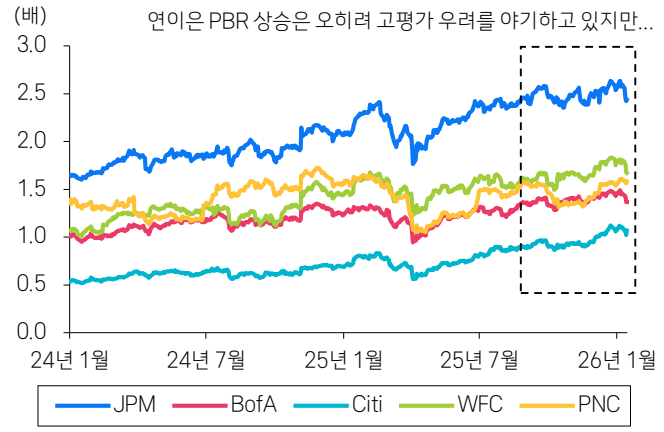
(백만 달러)	2022	2023	2024	2025	YoY (%)	2026E	YoY (%)
JP Morgan	12.08	16.22	19.74	20.01	1.4	21.34	6.6
Bank of America	3.19	3.07	3.19	3.81	19.4	4.32	13.5
Citigroup	7.00	3.99	5.95	6.97	17.1	10.17	46.0
Wells Fargo	3.27	4.82	5.38	6.27	16.5	7.02	11.9
PNC Financial	13.87	12.79	13.77	16.59	20.4	18.29	10.2
합계	39.41	40.89	48.03	53.65	11.7	61.14	14.0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추가 상승 여력 – 주주환원율 지속 여부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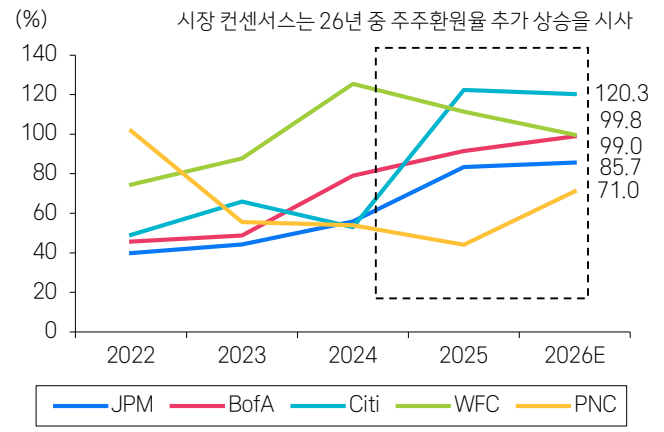
미국 은행들이 PBR이 최근 5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인 만큼,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한 기대도 여전히 상존. 이와 관련하여 향후 관건은 1) 최근 고점대비 조정을 야기한 미국 정부의 신용카드 이자율 상한 규제 도입 우려의 완화, 2) 은행들의 26년 연간 가이던스와 같이 ROTCE의 상승 확인, 3) 경기 회복 및 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 수요 회복으로 인한 실적 개선 모멘텀 강화, 4) 은행들의 이례적으로 높은 주주환원율의 지속 가능 확인 등이 될 것으로 생각. 참고로, 이들 은행의 올해 주주환원율 컨센서스는 70~120%로 나타남.

미국 은행 PBR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미국 은행 주주환원율 추이 및 2026E 컨센서스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2026년 1월 1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2026년 1월 19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